

#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

류 동 민

## 1. 서론

제가 오늘 발표하도록 부탁받은 주제는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학은 오랫동안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리키는 일종의 위장된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 자체의 쇠퇴라는 문제도 있고, 더욱이 마르크스 경제학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주류적인 경제학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정치경제학이고 어디서부터를 정치경제학이 아니라고 보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넓은 의미의 정치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학술지 중의 하나가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인데, 그 스코프(scope)를 보면 “우리는 마르크스, 케인스, 칼레츠키, 조안 로빈슨 및 칼도어의 전통에서 있다(founded in the traditions of Marx, Keynes, Kalecki, Joan Robinson and Kaldor)”라고 선언합니다. 마르크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케임브리지 교수였거나 최소한 식객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르크스를 포함시킨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잠정적으로 “노동생산성-계급 간 소득분배-이윤율의 기술적 및 사회적 연관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학적인 흐름”을 정치경제학이라 정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이나 칼레츠키주의자들(Kaleckian), 프랑스의 조절학과(Regulation School), 또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론 등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의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흐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에게서 늘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노동가치론입니다. 예를 들어 칼레츠키의 경우, 명시적으로는 노동가치론에 대해 옳다 그르다 소리를 하지 않고 거의 침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제로 전개하였던 유효수요이론은 계급 간 소득 분배 모형에 기초하고 있고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발표에서 김병연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체제론을 전공하는 분들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말미암아 갑자기 연구대상을 잃으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알고 보면 당신들도 정치경제학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그러한 시도에 걸맞은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즉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이윤율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 2.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가치론은 노동생산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생산성이란 말 대신에 “노동생산력(Produktivkraft der Arbei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생산성 개념과 다른 중요한 차이는 직접노동뿐만 아니라 간접노동까지도 투하노동으로 환원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을 수학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오키시오 노부오(Okishio Nobuo)의 교과서에 보면, “어떤 상품의 단위당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의 생산에 관한 사회적, 표준적인 노동생산성의 척도이다”[置塩(1965)]라는 서술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가치를 추계하면, 가치벡터를  $\lambda$ , 투입계수행렬을  $A$ , 노동투입벡터를  $l$ 이라 할 때  $\lambda = \lambda A + l$ , 즉  $\lambda = l(I - A)^{-1}$ 처럼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동생산성이라 하면 물적 부가가치를 직접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적으로는 직접노동은 물론, 투입물인  $A$ 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노동, 또 그 투입물의 투입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노동 같은 식으로 소급해서 간접노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노동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시네티[Pasinetti(1973)]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수직적으로 통합된 노

동계수(vertically integrated labor coefficient)”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위의 식에서  $\lambda = l(I - A)^{-1}$ , 즉 마르크스의 가치개념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개념의 역수가 마르크스적인 의미의 노동생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의 마르크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정보재 가치논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외국 학계에도 알려진 바 있는데[강남훈(2002), 강남훈 외(2007), Fine, Gimm & Jeon(2010), Jeon(2011)],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투하노동이 거의 필요 없는, 그냥 카피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정보재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즉 가치가 0인데 어떻게 가격이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i*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노동량이 0으로 수렴할 때 과연 수직적으로 통합된 노동량, 또는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가치는 0보다 클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조작적인(operational) 개념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은 오키시오나 모리시마(Morishima Michio) 같은 학자들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던컨 폴리(Duncan Foley)나 프랑스의 제라르 뒤메닐(Gerald Duménil) 등이 이른바 노동가치론의 “신해석(New Interpretation)”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계정(SNA)을 이용한 두 가지 정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간의 화폐표현(MELT: Monetary Expression of Labor Time)”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노동 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가격에 대응되는가를 나타냅니다. 즉, MELT는 실물적인 부가가치( $y$ )에 GNP 디플레이터( $p$ )를 곱한 화폐적 부가가치를 사회적 노동시간( $L$ )의 총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1) \quad MELT = \frac{py}{L}$$

두 번째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특유한 노동력 가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고전학파적인 전통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임금재들의 가치의 합계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해석”에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 $w$ )을 MELT로 나눈 것이 노동력 가치라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를 (1)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 \quad \frac{w}{MELT} = \frac{w}{py} = \frac{wL}{py}$$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전형문제(transformation problem)라 불리는 노동가치론의 논리적 정합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2)식에 따르면, 노동력 가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같아집니다. 즉,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적인 노동력가치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해석”이 등장하면서 마르크스적인 용어들이 실제로는 노동생산성 및 노동소득분배율과 연결되기에 이릅니다. 아주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를 버린 것으로 볼 수도 있을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새로운 질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모의 L은 현실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노동시간을 그대로 더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숙련노동은 미숙련노동보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므로, 숙련노동의 미숙련노동으로의 환원비율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교육훈련비용 등으로 이 환원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신해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처리함으로써 모든 노동시간을 단순합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에서 노동 강도와 노동생산력을 엄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노동 강도만 높여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해석”의 경우, 분모에는 전체 노동시간만 단순 합산해서 들어가니까 노동 강도가 세지면 시계로 켜 시간은 그대로지만 MELT의 값은 커지게 됩니다. 즉, 노동 강도의 변화만으로 MELT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해석을 체계화했던 던컨 폴리[Foley(2005)]는 이것은 “계량경제학적인 문제(econometric problem)”이며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Rieu(2008), Duménil, Foley, and Lévy(2009)].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개념이 다시 가격과 연결되면서 MELT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가격과 최종수요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MELT라는 개념은 결국 부가가치 생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가치가 먼저 결정되고 그것이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MELT의 경우에는 상품이 어

면 가격에 얼마나 팔렸느냐, 즉 최종수요와 상대가격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므로 거꾸로 가격이 가치를 규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저도 관련된 연구인데[Rieu(2008)]—마르크스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시계로 잰 노동시간(calendar time)과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치, 즉 추상노동시간(abstract labor time)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숙련된 노동이라면 똑같이 한 시간 일하더라도 미숙련노동 한 시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가치가 가격으로 표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MELT를 “노동시간의 가치표현(VELT: Value Expression of Labor Time)”과 “가치의 화폐표현(MEV: Monetary Expression of Value)”이라는 두 단계로 분해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MELT를 두 매개변수(parameter)의 곱으로 보는 것이므로, 거시경제 전체의 수준에서는 각각의 매개변수값이 얼마라고 가정하건 그 곱만 알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별 수준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노동생산성이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비율로 발전하는 균형성장 모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산업은 느리게 발전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산업은 모두 변화가 없는데  $i$ 재 산업의 노동생산성만 향상되었을 때, 또는  $i$ 재 산업의 노동강도만 강화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마르크스의 규정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변화해도 노동시간이 일정하면 생산되는 가치량은 같다고 간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산업만 불균등하게 성장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산업은 똑같은 시간 일을 하지만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게 됐다, 또는 더 생산적으로 됐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가 간의 문제, 이른바 국제가치론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이채언(2008)]. 예를 들면 앞의 발표에서 종속이론도 잠깐 언급했는데, 종속이론가들이 한참 몰두하던 것이 국제적 부등가교환이론입니다. 가령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서로 교역을 할 때 미국의 노동 한 시간과 라틴아메리카의 노동 한 시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노동 한 시간은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것이므로 라틴아메리카의 몇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시간의 가치 표현”과 “가치의 화폐표현”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Rieu, Lee, and Ahn(2014)].

이 문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존 정치경제학의 흐름에 속하는 연구들은 한국사회경제학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정주·정동진(2005)은 각 산업별로 노동시간에 대한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의 비율을 측정하여 “가치평가도”라 부르고 산업별 가치평가도를 추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후속 연구들[성낙선(2007), 유철수(2012)]도, 대체로 주어진 데이터로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산업별 부가가치생산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가치라는 불필요한 개념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저 자신은 전통적인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각 산업의 직간접 노동투입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줄어들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증가율을 가지고 노동생산성 격차와 가격요인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Rieu(2007)]. 그 결과 산업별 잉여가치율의 불균등한 발전양상을 보이려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가가치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정말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의, 또는 굳이 마르크스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노동생산성이 올라간 부분과 어떤 금융적인 요인이나 시장지배력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 요인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적 마르크스 가치론의 최첨단에 있는 외국의 논의들[Flaschel, Franke, and Veneziani(2013), Yoshihara and Veneziani(2013)]도 있지만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문제가 “신해석”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와 가격이 연결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만 지적해 둡니다. 사실 MELT라는 개념은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나오는 임금단위(wage unit)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평균적인 노동 한 시간의 임금이 만약에 만 원이라고 한다면, 삼만 원 짜리 상품은 노동을 세 시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금단위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MELT나 임금단위 같은 개념이 서로 맞물리면서 마르크스와 케인스 등의 여러 가지 조류가 만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정치경제학을 정의할 때 칼레츠키나 칼도어, 조앤 로빈슨 등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 그 학자들의 공통분모로서 이러한 개념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 3. 노동소득분배율

최근에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임금주도형 성장(wage-led growth)이라는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도 특히 포스트케인지안 계열의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김진일(2008)이나 홍태희(2009)의 실증분석도 있습니다. 임금상승은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 즉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기호로 표현하자면 소비(C)는 증가시키고 투자(I)는 감소시키게 되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가 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이중적인 성격, 즉 생산비용인 동시에 구매력이기도 하다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론적인 연구의 결론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임금주도형 성장체제가 되고 매개변수의 값이 바뀌는 다른 조건 하에서는 이윤주도형 성장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학계의 동향을 보더라도 웬지 넓은 의미의 정치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윤주도형보다는 임금주도형이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 또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웬지 임금주도형 성장을 강조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김진일, 홍태희 교수 등의 연구는 한국경제가 임금주도형 성장이었다는 점을 보인 바 있으며, 스톡해머[Onaran and Stockhammer(2005)] 등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상영(2013)도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수가 증가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그 반대방향, 즉 노동소득분배율로부터 내수로 작동하는 인과관계가 더 뚜렷해졌다, 말하자면 일종의 임금주도형 체제가 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부진의 문제,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윤 몫이 커지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상은 투자가 안 되는 문제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한국경제의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투자부진이 나타났다는 연구들과 그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Crotty and Lee(2004), 유철규(2008), 조복현(2007)]. 그 밖에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양준호(2013)의 논문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이론적 뿌리는 일본의 우니 히로유키(Uni Hiroyuki)라는 조절학과계열에 속하는 학자의 연구입니다. 그는 수출주도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수출재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국내 최종 수요재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빠르다”[宇仁 (1998)]는 데에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동생산성은 바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한 파시네티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노동계수"로 추계합니다. 먼저 일본, 그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실증분석하고 있는데[Uni, Song and Yang(2003)], 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분명히 수출주도형 경제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특성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수출재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이 감퇴하면서 수출주도 성장체제로서의 특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IMF위기 이후에 그러한 특성이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한국경제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근(2006)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즉 잉여가치율의 상승이 노동자계급도 궁핍화시키는 동시에 자본축적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추계와 관련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OECD 방식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잉여”, 즉 이윤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평가됩니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잉여가치율, 즉 착취율의 대리변수(proxy)로서의 의미 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취율을 계산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자영업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기회비용 개념으로 간주하는 임금등가(wage equivalent)라는 개념을 썼습니다[Shaikh and Tonak(1994)]. 한국에서는 정성진의 연구[정성진(2005), 정성진(2013), Jeong(2007)]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최근의 자영업이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밀려나는(push)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율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만큼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상영(2013)의 최근 연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취급합니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의 평균 비율대로 나뉜다고 가정합니다. 즉 자영업자가 백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때 기존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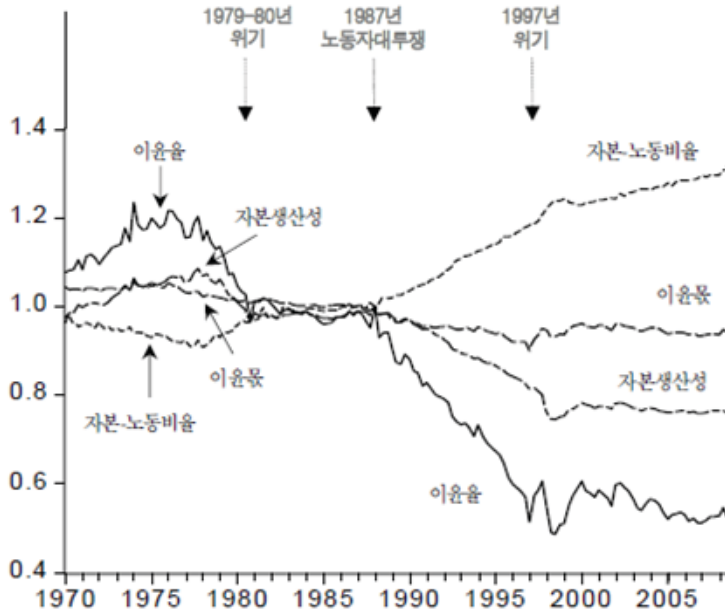


은 그중에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칠십 만 원이라면 칠십 만 원이 임금이고 나머지 삼십 만 원을 이윤으로 간주하는 것인 데 반해, 새로운 방법은 노동자 전체가 만약 일대일로 노동소득과 이윤소득을 나누고 있으면 자영업자의 경우도 각각 오십 만 원을 노동소득과 이윤소득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는 한국은행의 추계결과와는 크게 달라집니다. 향후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임금주도 성장 여부를 실증할 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인데, 만약 추계방식에 따라 이 변수의 추세 자체가 달라진다면 그러한 연구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 4. 이윤율

마지막으로 이윤율입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c, v, s$ 를 각각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라고 정의할 때, 이윤율은  $\frac{s}{c+v}$ 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v$ 로 나누어 주면,  $\frac{s/v}{c/v+1}$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윤율저하법칙의 핵심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 )이 상승하는 것, 즉 자본사용적-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이윤율의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잉여가치율( $s/v$ )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지 않는 이상 이윤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경향이 실제로 관철되는 경향임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Kliman(2007), Kliman(2011)]. 그러나 이른바 오키시오 정리(Okishio theorem)에 의해 실질임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만으로는 이윤율의 저하를 설명할 수 없음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는 이러한 오키시오 정리가 이윤율 저하의 가능성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오키시오 정리를 "만약에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하였다면, 그것은 실질임금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자는 것입니다[강남훈(2007), Kang and Rieu(2009), Rieu(2009)].

이윤율에 관한 마르크스 경제학적 실증연구들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잉여가치율을 가격범으로 측정되는 대리변수들로 바꾼 다음 그 추세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광범하게 수행한 것은 프랑스의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였는데[Duménil and Lévy(2000), Duménil and Lévy(2003)], 한국에서



자료: 안정화(2009).

〈그림 1〉 주요 비율의 추세

도 그들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김덕민(2006), 김덕민(2011), 윤소영(2011)]. 즉, 자본스톡을  $K$ , 이윤율  $P$ , 부가가치를  $Y$ 라 놓으면, 이윤율은  $\frac{P}{K} = \frac{P}{Y} \frac{Y}{K}$  이므로 결국 이윤몫( $\frac{P}{Y} = 1 - \text{노동소득분배율}$ )과 이른바 자본생산성( $\frac{Y}{K}$ )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정성진 교수가 이러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많은 후속 연구들이 있습니다[안정화(2009), 서재성(2013)]. 안정화(2009)의 연구를 보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윤율을 추계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한국경제에 관한 일종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사용적-노동절약적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장비율은 올라갔지만 자본생산성은 떨어졌고, 자본생산성이 떨어졌으니까 이윤몫이 올라가서—즉, 마르크스식으로 얘기하면 잉여가치율이 올라가서—그것을 상쇄할 수 있으면 이윤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상쇄하지 못하면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실제 추이를 보면 자본생산성은 계속 떨어지다가 IMF 위기 이후에 약간 회복되는 정도이고, 이윤율도 1970~80년대 높은 상태에서 쭉 떨어졌다가 IMF 위기 이후에 약간 회복되는 추세라는 전형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분석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이지만, 사실 이윤율을 항등식으로 분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윤율을  $c/v$ 와  $s/v$ , 가격턴으로 표현하면 자본생산성과 이윤몫 두 개로만 분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생산성과 이윤몫을 더 분해함으로써 각각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더 심화된 분석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원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른바 사회적 축적구조(SSA: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학파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이러한 항등식의 분해 자체는 더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일 뿐이며 이것으로 이윤율의 역사적인 전개 및 동학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뮤얼 보울즈 등[Bowles, Gordon, and Weisskopf(1986)]은 그 구성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해하여 노동-자본의 교섭력, 노동강도, 자본가의 시장지배 권력 등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정량화하기 매우 힘든 변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계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 결과를 통해 미국경제의 질적인 변화를 실증하려는 시도들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홍장표(2013)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경제의 이윤율을 기존의 틀에서 조금 더 분해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틀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자본생산성은 올라갔고 또 IMF 위기 이후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르크스적인 착취율은 올라갔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윤율은 연평균 4.1% 올라가는데 이걸 더 분해해 봤더니 실상은 연구개발투자(R&D자본스톡)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말하자면 세계화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그것들만으로도 이윤율 변화분의 무려 90% 가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최초의 것이므로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생산성과 이윤몫의 추세를 비교하는 기존의 분석틀을 넘어서면 무엇인가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1990년대 이후의 이윤율 변화의 대부분이 연구개발과 세계화의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은 소국 경제(small economy)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영향을 무시하고서는 이윤율의 추세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임금주도 성장의 문제로 돌아가 보더라도, 이론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임금주도성장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명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임금주도경제라고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5. 결론

이상에서 간략하게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및 이윤율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기존에 밝혀졌던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수정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 그 다음에 임금주도/이윤주도건 또는 내수중심/수출중심이건, 그 무엇으로 설명하든지간에 한국 자본주의가 특히 IMF 위기 이후에 어떤 측면에서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제 발표에서 정의하는 “정치 경제학”의 향후 연구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전화: (042) 821-5522  
팩스: (042) 821-8998  
E-mail: rieudm@cnu.ac.kr

## 참고문헌

- 강남훈(2002):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서울, 문화과학사.  
강남훈(2007): “종합 오키시오정리와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마르크스주의연구』, 4, 2, 238-250.  
강남훈 외(2007): 『정보재가치논쟁』,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김덕민(2006): “기술변화 모형과 마르크스적 자본축적 모형”, 『마르크스주의연구』, 3, 2, 289-311.

- 김덕민(2011): “기술변화와 자본축적궤도: 윤소영의 ‘자본축적의 로지스틱 가설’에 대한 비판적 소고,” 『마르크스주의연구』, **8, 2**, 114-133.
- 김정주 · 정동진(2005):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산업부문간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및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25**, 79-122.
- 김진일(2008):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경제발전연구』, **14, 1**, 151-166.
- 김창근(2006):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변화,” 『진보평론』, **27**, 10-37.
- 서재성(2013): “한국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 성낙선(2007): “마르크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 『경제학연구』, **55, 1**, 69-101.
- 안정화(2009): “자본축적과 노동시장구조변화: 자본스톡의 추계와 분석(1970-2008),” 『사회경제평론』, **32**, 229-268.
- 양준호(2013):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축적체제: 조절이론의 새로운 축적체제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18**, 93-118.
- 유철규(2008):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3**, 139-172.
- 유철수(2012): “한국의 잉여가치율 추이: 1993~2010,” 『마르크스주의연구』, **9, 4**, 134-172.
- 윤소영(2011): 『현대경제학 비판』, 서울, 공감.
- 이채언(2008):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새 발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정성진(2005):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서울, 책갈피.
- 정성진(2013): “한국자본주의에서 위기와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회 엮음,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파주, 한울.
- 조복현(2007):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사회경제평론』, **29, 1**, 253-296.
- 주상영(2013): “소득분배악화와 내수침체”,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홍장표(2013):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 추이와 변동요인,” 『마르크스주의연구』, **10, 4**, 10-44.
- 홍태희(2009): “한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 바두리 마글린 모형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12, 3**, 43-61.

- 宇仁宏幸(1998): 『構造変化と資本蓄積』, 有斐閣.
- 置塩信雄(1965): 『資本制經濟の基礎理論』, 創文社.
- Bowles, S., D. M. Gordon, T. E. Weisskopf(1986): “Power and Profits: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Postwar U.S. 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8**, 1-2, 132-167.
- Crotty, J., Kang-Kook Lee(2004): “Was the IMF's Imposition of Economic Regime Change in Korea Justified? A Critique of the IMF's Economic and Political Role Before and After the Crisis,” *PERI Working Paper Series*, No.77.
- Duménil, G., D. Lévy(2000): *Crise et sortie de crise: Ordre et désordres néolibéraux*, Preses Universitaires de France, 이강국 · 장시복 옮김(2006)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기원』, 서울, 필맥.
- Duménil, G., D. Lévy(2003): “Technology and Distribution: Historical Trajectories à la Marx,”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2**, 201-233.
- Duménil, G., D. K. Foley, D. Lévy(2009): “A Note on the Formal Treatment of Exploitation in a Model with Heterogeneous Labor,” *Metroeconomica*, **60**, 3, 560-567.
- Fine, B., Gong, Gimm, Heesang Jeon(2010): “Value is as Value Does: Twixt Knowledge and the World Economy,” *Capital and Class*, **No.10**, 69-83.
- Flaschel, P., R. Franke, R. Veneziani(2013): “Labour Productivity and the Law of Decreasing Labor Cont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7**, 379-402.
- Foley, D. K.(2005): “Marx's Theory of Money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F. Moseley ed. *Marx's Theory of Money: Modern Appraisals*, Palgrave Macmillan.
- Jeon, Heesang(2011): “The Value and Price of Information Commodities: An Assessment of the South Korean Controversy,” in Paul Zarembka and Radhika Desai (eds.), *Revitalizing Marxist Theory For Today's Capitalism.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27**,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Jeong, Seongjin(2007): “Trend of Marxian Ratios in Korea: 1970-2003,” in Martin Hart-Landsberg, Seongjin Jeong and R. Westra (eds.), *Marxist Perspectives on Sou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 Ashgate.
- Kang, Namhoon and D.-M. Rieu(2009): “The Case for Reformulating Marx's Theory



- of the Falling Rate of Profit,” *Political Economy Quarterly*, Japan Society of Political Economy, **46**, **3**, 53-60.
- Kliman, A.(2007): *Reclaiming Marx’s Capital: A Refutation of the Myth of Inconsistency*, New York, Lexington Books.
- Kliman, A.(2011):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London, Pluto Press.
- Onaran, Özlem, E. Stockhammer(2005): “Two Different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ies: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in Turkey and South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41**, **1**, 65-89.
- Pasinetti, Luigi, L.(1973): “The Notion of Vertical Integration in Economic Analysis,” *Metroeconomica*, **25**, **1**, 1-29.
- Rieu, D.-M.(2007): “Uneven Development of the Rates of Surplus Value: the Case of South Korea,” in (eds.) by Martin Hart-Landsberg, Seongjin Jeong and R. Westra.
- Rieu, D.-M.(2008): “Estimating Sectoral Rates of Surplus Value: Methodological Issues,” *Metroeconomica* **59**, **4**, 557-573.
- Rieu, D.-M.(2009): “Has the Okishio Theorem Been Refuted?” *Metroeconomica*, **60**, **1**, 162-178.
- Rieu, D.-M., Keonbeom Lee & H.-H. Ahn(2014): “The Determination of the Monetary Expression of Concrete Labor Time under the Inconvertible Credit Money System,” Forthcoming i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 Shaikh, A., E. Ahmet Tonak(1994): *Measuring the Wealth of N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Accou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 Hiroyuki, Song Lei, Yang Jun-Ho(2003): “On Export-Led Growth in Korea and China: From a Kaldorian Viewpoint,” 『지역사회연구』, **11**, **1**, 25-61.
- Yoshihara, N., R. Veneziani(2013): “The Measure of Labour Content: A General Approach,” Discussion Paper Series A No.587,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